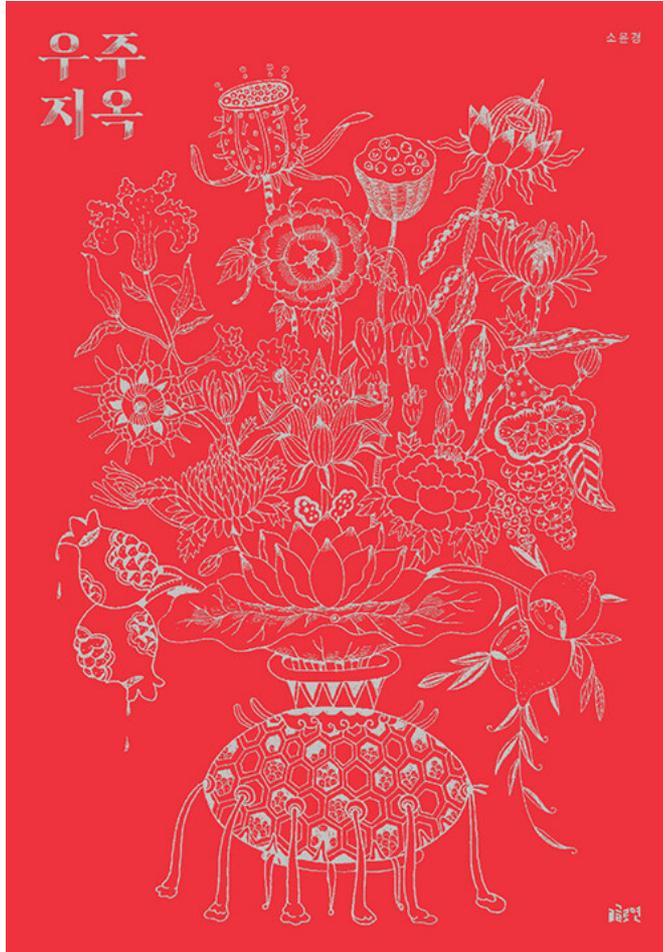


우주지옥

소윤경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내가 상상한 지옥을 표현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 기르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지옥, 욕심, 탐욕, 환생, 천국, 상상, 생명존중, 자기관리, 생태전환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6도04-02]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미술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지옥, 아름다운 삶을 위한 원초적 지침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지옥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예술성 높게 표현한 그림 책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생태계를 넘어 우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도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만큼이나 넓고 깊다고 생각한 작가는 미지의 우주 어디인가에 꼭 있을 것만 같은 지옥별을 그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죽으면 그곳으로 추방당하게 합니다. 지옥별에 이르면, 여러 동물 두상과 기괴한 해골들의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이글거리는 불길에 휩싸인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는 지옥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자가 가게 되는 ‘씻물지옥’을 포함한 17가지의 지옥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각적, 언어적 표현으로 묘사되어 책을 펼치는 순간, 무시무시한 지옥 세계로 몰입하게 만듭니다. 지구별의 일억 년이 지옥 시계로는 일 초에 불과함에도, 지옥 시계로 이조 이억 년, 구조 구역 년 등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섬뜩한 별을 받아야만 환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자연을 겸허하게 대해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지옥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설파합니다.

■ 학습 목표

- 질문하며 읽기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그림책의 주제를 탐색하며 내가 상상한 지옥을 표현할 수 있다.
- 작품 내용과 어울리는 토의 주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수업 준비

『우주지옥』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이 읽고 이야기할 만한 그림책으로 기괴하지만 아름답다.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여 색감이 뛰어난 그림은 한 장 한 장 다 작품이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묘사한 글과 함께 그림을 본다면, 알록달록하게 표현한 형체의 의미를 알고 섬뜩함을 느낄지 모른다. 아이들의 경험, 흥미와 수준에 따라 책 속 표현을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다.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한 유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잔인한 묘사가 자세한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다. 저학년 학생에게 이 그림책을 활용할 때는 그림책을 전체 다 읽어주기 보다는 아이들의 이해 정도를 감안하며 몇 장면만 읽어 줄 수도 있다. 5, 6학년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적용할 때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삶과 연결 짓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국어, 도덕, 미술과의 성취기준을 활용한다면 수업 시간에 『우주지옥』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성적 판단이나 종교적 해석은 지양하고 문학작품, 예술작품으로 이해하며 작가의 상상력과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2차시
	표지 살펴보기	
읽는 중	내용 파악하기	
	질문하며 읽기	
	그림의 특징 탐색하기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읽은 후	지옥 탈출 처방전 탐구하기	1차시
	내가 상상한 지옥 표현하기 【선택활동】 - 내가 상상한 천국 표현하기 - 인상적인 그림 따라 그리기	2차시
	토의 주제 찾아 이야기 나누기	1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떠오르는 단어

- 다음 그림이나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웹툰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지옥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

Tip. 지옥을 연상할 수 있는 낱말이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준비한다. 학생들의 경험과 이해 정도에 따라 교사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지옥’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써 보는 활동을 해도 좋다. 개인별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는 전체 활동으로 연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칠판에 메모해 가며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다.

- 내가 상상하는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악마들이 쇠창살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골이 많을 것 같아요.

염라대왕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은 죄에 따라 벌을 결정해요.

제가 음식을 남기면 할머니께서 지옥에 가면 내가 남기거나 버린 음식을 억지로 다 먹어야 하는 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지옥은 썩은 음식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를 봤는데,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고 죽은 사람은 여러 지옥을 거쳐가요.

현세에서 저지른 잘못에 따라 다른 벌을 받아요. 불구덩이 지옥, 얼음 지옥 등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고 해요.

2.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예: 빨간색 표지가 강렬해요.

꽃이 많이 보여서 민화의 화조도가 떠올라요.

절에서 본 것 같은 그림이에요.

꽃 그림이 은색으로 반짝거려요.
연꽃, 석류, 포도,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게 보여요.
표지 색깔이 빨강고 제목에 '지옥'이란 글자도 있어서 좀 무서워요.

- 표지를 한 번 만져봅시다. 어떤 느낌인가요?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크레파스를 만지는 것 같아요.
안경달이를 만질 때와 비슷한 촉감이예요.

- 제목 '우주지옥'은 무슨 뜻일까요?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고 벌을 주는 곳을 '우주지옥'이라는 말하는 것 같아요.
개미지옥처럼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곳 같아요.

Tip. 책 표지의 감촉이 독특하다. 책 표지에 공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책 표지를 만지고 느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우주에 있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우주에 있는 '우주지옥'에 가두고 벌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지구인이 우주에서 혼자 살아남아 지옥같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 같아요.

Tip. 동양에서는 지옥을 땅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윤경 작가는 우주에 있는 지옥을 상상하며 『우주지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읽는 중

1.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우주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예: 지구와 우주를 망가뜨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죽은 뒤 추방되어 가는 지옥별입니다.

- 우주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지옥사자들이 죄인을 심판하고, 죄의 종류에 따라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나야 하나요?

예: 억만 겁의 시간, 아주 오랜 시간

Tip. 아이들이 '겁'의 의미를 모를 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해 준다. 주로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로, '겁'은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때에서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이다.

- 지옥의 시작은 어디인가요?

예: '지옥의 문'이에요.

- 지옥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 예: '기름바다지옥'에 복어, 해마, 고래, 심해어, 해초 등 바다 생물이 보여요.
- 지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예: '기름바다지옥'은 물을 오염시킨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 그곳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물을 오염시키고 낭비한 자들은 썩은 기름바다에 둥둥 떠다니요. 낚시 바늘에 찔려 물러오는 흡혈물고기에게 온몸을 물 어뜰기고 시커먼 기름 물을 끝없이 마셔야해요. 바다가 다시 깨끗해 질 때까지요.
Tip.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정도, 선생님의 수업 의도에 따라 글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 지옥에서 형량을 채우고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환생의 나무에서 다시 생명의 씨앗이 돼요.
 - '환생'은 무슨 뜻인가요?
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 환생의 문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파도, 연꽃, 물고기, 꽃이 보여요.
 - 환생의 문은 무엇인가요?
예: 속죄하고 뉘우친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이에요.
문을 나서면, 눈 깜짝할 사이 지구에 도착해서 새 삶을 살아요.

2. 그림의 특징 탐색하기

- 작가는 지옥의 모습을 주로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예: 동물 얼굴이 많이 보여요. 외계인 같아요.
- 어떤 동물의 모습이 보였나요?
예: 박쥐, 늑대, 수탉, 호랑이, 두꺼비, 문어, 모기, 독거미, 용, 물고기, 거북 등이 보여요.
- 왜 그 동물로 표현했을까요?
예: 울음지옥에서 수탉의 모습이 보여요. 울음지옥은 '거짓말을 일삼아 사람들을 속이고 헛소문을 퍼뜨려 누군가를 곤경에 빠트린 자'들이 가는 곳이고 매초 마다 날카로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탉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귀에 속 박히기 때문에 울음지옥에 수탉을 그려 놓은 게 어울려요.
Tip. 무엇을 표현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 장면의 배경 색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두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 해서 나타냈어요. 신비한 느낌을 주기 위함일 것 같아요.
왼쪽 페이지에는 지옥의 이름과 지옥을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불꽃 모양의 배경을 그려줬어요. 붉은 색은 아니지만 불꽃이 타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 앞뒤 면지의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앞면지는 빨간색, 뒷면지는 가운데는 노랑고 점점 파란색으로 면지게 표현했어요.
앞 면지는 지옥의 시작을 알리고 뒤 면지는 환생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 그 밖에 그림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지옥에 간 사람을 사람 모양 쿠기처럼 단순하게 표현했고 표정을 그리지 않았어요.
지옥을 선명하고 다양한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표현했어요. 그림만 봤다면 상상화를 그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림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나 게임 속 캐릭터같이 흥미로웠는데 글을 읽고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니 조금 무섭기도 해요.

Tip. 『우주지옥』은 색감이 풍부하고 뛰어나다. 컬러세퍼레이터가 참여하여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컬러감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그림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3. 질문하며 읽기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 그림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써 봅시다.

예:

사람들은 왜 가 본 적도 없는 지옥을 상상했을까?
작가가 지옥을 17개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
또 다른 지옥은 없을까?
내가 지옥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까?
지구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변하면 지옥의 종류와 모습도 변할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생했는데 지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옥과 반대로 천국은 없을까?

4.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표지 그림과 같은 화병지옥이 예뻐서 기억에 남아요. 표지는 은색으로 테두리만 그렸다면 책 속 화병지옥은 화사해요. 첫 번째 지옥부터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박쥐가 씻물을 저울 때 해골이 보였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의 나무에서 자라난 잎, 꽃, 열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환생의 나무에 작은 동물부터 인간까지 생명의 씨앗을 그려 넣은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우주에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은 없으니 언제나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와 닿았어요.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주제 같아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지옥은 어디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사막지옥이 기억에 남아요. 지옥은 나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게으름을 피운 것도 죄가 되어 형벌을 받는 모습에 나도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이에요.

악플지옥이 인상적이에요. 인터넷에 나쁜 댓글과 욕을 달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플지옥에 갈 사람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작가의 말을 확인해 봅시다.

Tip. 뒷면지에 적힌 작가의 말을 함께 읽어본다.

이 책을 펼쳐 드신 당신은 분명 천국이 예약된 분일 거예요. 혹여 지옥 풍경이 궁금하실까 봐 미리 보여 드리려 해요.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기도 하지요. 무심코 저지른 죄가 없는지 꼼꼼히 되돌아보시고, 우리 먼 미래에 천국에서 뵈어요!

- 작가는 왜 이 그림책을 만들었을까요?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길 바랬을까요?

예: 작가는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가진 것,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매 순간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죄, 작은 생명과 자연, 지구를 보호하지 않은 죄도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작은 생명과 자연을 잘 존중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대단 것 같아요.

모든 지옥이 끔찍해서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구 환경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하는 지옥이 많아서 놀랐어요. 대개 제가 생각했었던 지옥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동물과 자연, 지구에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고 설정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읽은 후

1. 지옥 탈출 맞춤 처방전 탐구하기

■ 지옥 탈출 맞춤 처방전 탐구하기

-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덕과 가치를 찾아봅시다.

- 쇠물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지요?

예: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 가요.

-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예: 게임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시간을 낭비한 것도 죄일까요?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닐텐데 왜 지옥에 간다고 했을까요?

예: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고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을 낭비했으니 지옥에 가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 미덕 카드(또는 가치 목록)를 살펴보며 어떤 미덕 또는 가치가 필요한지 짚고 이야기해봅시다.

예: '근면'의 미덕을 키워야 해요. 근면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는 의미와 같아요.

- 가면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요?

예: 인종, 성, 연령, 재산, 지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한 사람들이 가요.

- 가면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미덕이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외모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미덕 카드와 가치 목록에는 없지만 저는 '공정', '평등'이 떠올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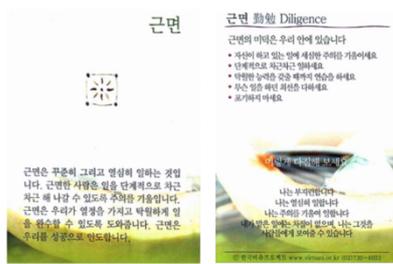
- 짝(또는 모둠)과 함께 지옥 탈출 미덕(가치)을 찾아 이야기해봅시다.

- 짝(또는 모둠)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전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봅시다.

예:

지옥 탈출 맞춤 처방전		
지옥	어떤 사람이 갈까?	맞춤 미덕(가치)
씻물지옥	시간을 낭비한 자	근면
가면지옥	인종, 성, 연령, 재산, 지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한 자	공정, 평등
저울지옥	자신의 자녀나 반려동물을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버려서 숨지게 한 자	책임감
구토지옥	음식을 탐하여 폭식한 자	절제
울음지옥	거짓말을 일삼아 사람들을 속이고 헛소문을 퍼트려 누군가를 곤경에 빠트린 자	진실함, 신의
고기지옥	동물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죽인 자	존중, 사랑
...

Tip. 교사가 한두 개 지옥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준다. 그 뒤 짝 또는 모둠에서 지옥과 미덕(가치)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짝(모둠)에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전체 공유하며 미덕과 가치를 의미를 되새겨본다.



자존감	모험과 도전	논리	독창성
건강	절제	추진력	절음
탁월성	충용	효율성	집중력
감사	정신적 성장	이타주의	성장
성취	믿음	지혜	질서
창의성	마음의 평화	호기심	평화
배려	순수함	깊이	정확성
소속감	아름다움	우아함	진정성
지식	긍정성	용위	현실주의
용기	인내	에너지	감수성
책임	다양성	명예	자발성
신의	재미	정확성	승리
사랑	유머	권력	겸손
성취감	프로정신	영향력	끈기
소통	자유	통찰력	실용성
열정	안정감	리더십	개인주의
안전	남들과 다른 삶	끈기	꼼꼼함
변화	열린 마음	이해력	유연성

<미덕의 보석들>
출처: 한국버츠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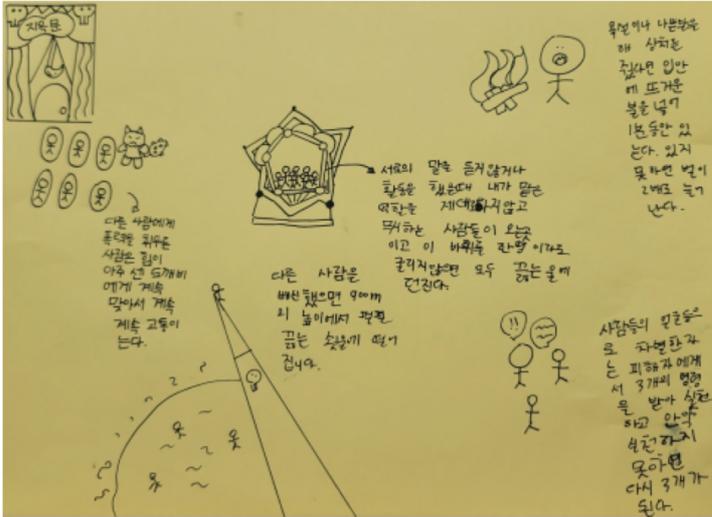
<가치 목록>

2. 내가 상상한 지옥

■ 내가 상상한 지옥 표현하기

- 내가 상상하는 지옥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예:



-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힘이 아주 센 도깨비에게 계속 맞아서 고통을 당한다. 다른 사람을 배신했으면 900m의 높이에서 펄펄 끓는 쇠물에 떨어진다.
- 서로의 말을 듣지 않거나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는 지옥으로 바뀌를 한 명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모두 끓는 물에 던져진다.
- 욕설이나 나쁜 말을 해 다른 사람을 상처 줬다면 입안에 뜨거운 불을 넣어 1분 동안 견뎌야 한다. 견디지 못하면 벌이 두 배로 늘어난다.
- 사람들의 얼굴 등으로 차별한 자는 피해자에게 3개의 명령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3개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지옥의 문을 들어가면 귀신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용암처럼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고, 무거운 돌 여러 개를 등에 얹고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해요. 마녀가 지옥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마솥에 넣어 끓여 놓은 죽을 먹지로 계속 먹어야 해요.



지옥에 가면 지옥의 문이 세 개 보여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용암에 빠져요. 사람이 조각 조각 잘리고 유령이 나와서 사람 조각을 먹어요. 거미가 나타나 사람 몸을 거미줄로 묶어서 여기저기 던져요.

Tip.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선택 활동 1]

■ 내가 상상한 천국 표현하기

- 스크래치 페이퍼에 내가 상상한 천국을 표현해봅시다.



제가 상상한 천국은 '자연 천국'입니다.

자연 천국에는 꽃, 열매, 과일 등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요.

이곳은 작은 생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Tip.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림을 그리면 환상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

【선택 활동 2】

■ 인상적인 그림 따라 그리기

- 트레이싱지에 가장 인상적인 그림을 옮겨 그려봅시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민화에서 봤던 호랑이가 떠올랐어요.



출처: 한국데이터진흥원

Tip. 창의적이고 세밀한 그림을 따라 그리며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토의 주제 찾아 이야기 나누기

■ 토의 주제 떠올리기

- 그림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떠올려봅시다.

예: 환생한다면 어떤 생물로 태어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을 주면 사람들의 행동이 고쳐질까? 별 말고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계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가 될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변하면 지옥의 종류도 변할까? 예전에는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거나 물을 오염시키는 일,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갈 일이 없었을 것 같다.

Tip. '읽는 중 활동'의 <질문하며 읽기_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주제를 찾을 수도 있다.

그림책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 토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의 주제 찾아 이야기 나누기

- 토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우주지옥』을 함께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고마운 마음 전하기

- 내 삶이 환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가족, 친구, 자연 모두 엄청난 우연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세상 만물을 더욱 아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삶을 빛나게 가꾸어 갑시다.